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44
----------	-------

발의년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유재수의원 등 외명

1. 주 문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을 촉구 결의함.

2. 제안이유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특정지역(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고속국도의 노선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현행 고속도로 명칭 부여 규정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통과 지역의 비중이 91%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촉구를 결의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구 ~ 하남시 ~ 서울 강동구 ~ 구리시 ~ 남양주시 ~ 서울 노원구 ~ 의정부시 ~ 양주시 ~ 고양시 ~ 김포시 ~ 인천 계양구 ~ 인천 부평구 ~ 부천시 ~ 인천 남동구 ~ 시흥시 ~ 안산시 ~ 군포시 ~ 안양시 ~ 의왕시를 거쳐 판교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한 고속도로이다.

당해 고속도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및 서울시로의 인구와 교통량 집중, 1기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되었다. 1991년 10월 '판교-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연장 128km 중 81%인 103.6km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km가 서울시 지역을, 10%인 12.5km가 인천광역시 지역을 통과한다.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특정지역(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서울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깥쪽으로 수도권 지역을 순환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9년 4월 1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